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8, 이미숙 이보다 더 화끈할 수 없다! '놀라운 미숙씨' 대표작 탄생!

2026. 4. 20.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8 관련 이미지

매회 인기 신기록을 경신 중인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8이 네 번째 호스트 이미숙의 파격 변신을 앞세워 주말 밤을 매콤한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는 초특급 스타들과 민보 크루들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웃음으로 매회 화제성 차트를 휩쓰는 대한민국 1등 코미디 쇼.

지난 18일(토) 공개된 4화에서 이미숙은 화끈함을 넘어서 파격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고정시켰다. 우아한 블อนด์ 헤어스타일에 정장 차림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오프닝을 연 이미숙은 “내숭 없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좋아해주는 것 같다”라며 대중이 열광하는 솔직한 매력을 코미디 엑기스로 짙어내며 웃음을 쥐락펴락했다.

이미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속스러운 미숙씨’의 코미디 라이브 확장판을 보는 듯한 생생함과 털털함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코미디 베테랑’ 신동엽과는 빨래터에서 눈빛과 터치만으로 아슬아슬한 텐션을 폭발시키는가 하면, ‘어린 남편’ 김원훈과는 돌발 스킨십을 서슴지 않으며 웃음의 급소를 정확히 정조준했다.

압권은 고풍스러운 비주얼에 젠지어를 남발하는 ‘럭키비키 여왕’ 캐릭터였다. 섹시와 애교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미숙의 공세에 웃음 폭격기 김규원조차 당황하게 하는 예측 불가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기에 시어머니 이수지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원숙한 며느리’부터 시아버지 정상훈의 갱년기를 애교로 날려버리는 왕언니의 과감함까지, 독보적인 연기 변주로 코미디의 정점을 찍었다.

배우 인생 최초로 날 것의 코미디 연기에 몸을 던진 이미숙은 “생생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느낀 색다른 경험”이라고 벅찬 소감을 털어놓았다. 수장 신동엽 역시 “현장에서 쏟아낸 열정적인 아이디어들로 크루들과도 좋은 기운을 주고 받았다”라며 베테랑 연기자에서 ‘코미디 여제’로 공인했다.

한편, 이번 시즌은 전매특허인 날카로운 시사 풍자로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켄드 업데이트’의 신입 크루 안주미는 앵커 안영미마저 쥐락펴락하는 ‘뇌절 리포터’로 맹활약, ‘제2의 지예은’ 탄생을 예감케 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향후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미숙의 파격 변신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SNL 코리아> 시즌 8은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4월 25일(토) 저녁 8시에는 20년 경력의 ‘무대 장인’ 신성록이 5화 호스트로 출격해 다시 한번 도파민 폭발을 예고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